

보도설명자료

('20. 2. 1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두중은 최근 수년간 세계 석탄화력 발주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, 두중의 국내 원전 매출(추정)은 에너지전환 정책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음. 정부는 가스터빈·풍력 등 새로운 시장을 육성하는 한편, 원전기업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보완대책 등을 지속 추진·강화해 나가겠음

- ◇ 두중에 따르면, 두중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세계 발전시장 침체, 특히 석탄화력 발주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음
- ◇ 한수원에 따르면, 에너지전환 정책 이후 한수원이 두중에 지급한 금액(두중의 국내 원전 매출 추정)은 과거 대비 변화 없음
- ◇ 두중이 사업다각화를 추진중인 가스터빈·풍력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도 수요창출, R&D 기반구축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
- ◇ 정부는 두중 및 관련 협력사 등 원전기업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대책 등을 지속 추진·강화해 나가겠음
- ◇ 219일 <탈원전 직격탄 두산중, 2,600명 대상 명예퇴직 받기로(서경)>, <발전사업 수주 끊기자 협력업체도 고사 위기(서경)>, <탈원전 3년, 두산중 대규모 감원(조선)>, <탈원전 여파 두산중, 2600명 대상 명예퇴직 실시(조선비즈)>, <탈원전 직격탄 두산중 명예퇴직(한경)>, <탈원전 쇼크' 두산중 2600명 대상 명예퇴직(매경)> 등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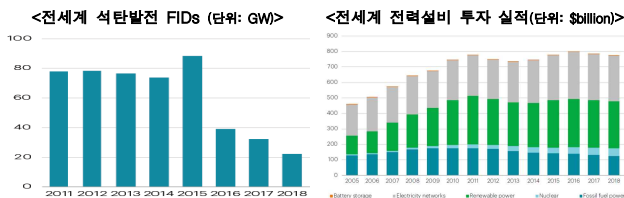
1. 기사내용

- 두산중공업(이하 두중)은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심각한 실적 악화를 겪어 왔으며, 결국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함
- 두중 협력업체들도 일감이 없어 고사위기에 처해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【두중의 경영 어려움 관련】

- 두중에 따르면, 두중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세계 발전시장 침체, 특히 석탄화력 발주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음
- 실제 세계 석탄화력 신규발주는 감소 추세이며, 석탄발전 최종투자결정(Final Investment Decisions)은 '16년이후 큰 폭으로 감소함
 - * 세계 석탄화력 최종투자 결정(GW, IEA): ('13) 76 → ('15) 88 → ('17) 32 → ('18) 23
- 세계 전력시장 투자 역시 재생E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, '18년 전력 투자*(계통투자 포함)의 약 40%가 재생E 분야임
 - * '18년 세계 전력투자(IEA) : 신재생(313\$b, 40%), 계통(288\$b, 37%), 화력(127\$b, 16%), 원전(47\$b, 6%)



* 출처: IEA, World Energy Investment 2019

- 참고로 한수원에 따르면, 에너지전환 정책('17.10) 이후 한수원이 두중에 지급한 금액(두중 국내 원전 매출로 추정)은 과거 대비 변화 없음
 - * 한수원→두중 지급액(억원, 출처: 한수원) : ('13) 6,355 → ('14) 7,440 → ('15) 7,871 → ('16) 6,559 → ('17) 5,877 → ('18) 7,636 → ('19) 8,922

□ **외신 등에 따르면, 세계적 에너지전환 추세로 인해 과거 전통E 중심의 글로벌 발전업체 등도 어려움을 겪어 왔음**

- **Siemens, GE**는 전통E 부문을 축소 중이며, 재생E 부문 확대중
 - * **(Siemens)** '11년 원전사업 사실상 포기 → '17년 6,900명 감원 계획 발표(절반 이상이 화력발전 종사자) → 풍력·태양광·가스터빈으로 전환 추진중
 - * **(GE)** '17년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사업부 1.2만명 감원 발표, 재생E 사업 확대중
- **WEC, Hitach** 등 주요 원전기업들은 원전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
 - * **(웨스팅하우스)** 부실확대로 도시바에 피인수('06년) → 도시바는 원전사업 약 7조원 손실과 함께 美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('17년) →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에 매각('18년)
 - * **(Hitach)** 英 Horizon社 인수('12년) → 英정부와 사업비 출자 교섭 난항으로 신규 원전 프로젝트(Wyifa Newydd, Oldbury)를 중단하면서 약 3조원 손실('19년) → 향후 원전보수·폐로 사업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주력할 방침

□ **두중이 사업다각화를 추진중인 가스터빈·풍력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도 수요창출, R&D 기반구축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**

- **(가스터빈)** 가스터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·관 합동으로 **한국형 LNG 복합발전 모델 개발·사업화**를 적극 지원할 계획
 - 추가 실증테스트베드 구축방안도 발전5사와 협의를 거쳐 **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**에 반영 추진
 - * 「한국형 표준 가스복합 개발 사업화 추진단」(2.13) 발족 → 「가스터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」(~'20.상) 마련 계획이며, 설계표준화, 주기기·핵심 부품 개발, 테스트베드 구축 등 추진
- **(풍력)** 서남해·신안 등 **대규모 단지 조성**(지자체 협조)을 통한 **수요 창출**, 초대형 풍력·부유식 등 **신기술 개발 R&D***를 지원하고,
 - * '22.상까지 8MW급 풍력시스템 개발(정부 285억원)
'24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(정부 380억원)
 - **국산 풍력발전기 및 부품의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**으로 국내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
 - * 창원 너셀테스트베드 구축('20~'24, 총사업비 400억원), 영광 풍력실증단지 2단계('20~'22, 총사업비 260억원)

【두중 협력사 등 원전기업의 어려움 관련】

□ 정부는 두중 및 관련 협력사 등 원전기업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**보완대책 등***을 지속 추진·강화해 나가겠음

- * 에너지전환 보완대책('18.6),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('19.4, '19.9), 원전해체산업육성전략('19.4), 원전 전주기 수출 활성화 방안('19.9)

① 원전기업의 **일감 확보, 단기 경영으로 해소** 지원을 통해 원전 산업의 **연착륙을 유도**해 나가겠음

- **(신규원전 수출)** '20년중 **체코·폴란드** 원전사업 계획 확정·발주에 대비해 **고위급면담·한국원전 홍보**를 강화하는 한편, **UAE와 함께 제3국 원전시장 진출**을 위한 협력도 추진
- **(전주기 수출)** 원전수출을 위한 **제도정비**(^{*}20.1), 기업지원을 위한 **지원체계 마련**(^{**}20.4~) 등 **전주기 수출 기반** 구축
 - * (제도정비) '원자력 발전의 수출진출에 관한 고시' 제정·시행
 - ** (지원체계 마련) 중소·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, 인증취득 등 지원
- **(해체·안전투자)** 既수립된 계획에 따라, **해체발주**(~'30년, 1.6조원), **안전설비 보강**(~'30년, 1.7조원) 등을 차질없이 추진
- **(경영으로 지원)** 원전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업계 간담회 **수시 개최**하고, **인증·자금** 등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·지원
 - * (인증) 국내·외 인증 취득·유지 비용 지원 확대
 - (자금) 선금금 지급 비율 확대('18년 51.4% → '19년 56.4%)

② **핵심 공급망, 인력** 관리를 통해 원전 **안전운영과 핵심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** 노력하겠음

- **(공급망 관리 개선)** 한수원 공급자 관리체계 강화('20) → **핵심 예비품 및 공급자 체계적 관리** 추진
- **(단종품 대응)** 단종 예상품목 사전관리, 일반규격품 품질검증^{*} 제도 등을 통해 **단종품 발생 가능성에 대비**
 - * 공급사 품질보증프로그램 포기 등으로 Q등급 부품조달이 어려울 경우, 일반규격품(S등급 부품)에 대한 품질검증을 통해 대체부품을 조달하는 제도

- **(핵심인력 관리)** 원전 공기업별 핵심인력 유지대책('18.11)에 따라, 핵심인력 대상 별도 직무급, 특별대우 적용 등 **인센티브 제공**

- **(인력 DB 구축) 원자력학회와 공동으로 퇴직자 DB 구축**(~'20.7)
→ 원전운영, 수출 등에 필요한 기술전수, 네트워크 지원

③ 원전 건설 분야외에 **다양한 대체·유망 시장을 신규 창출**하고, **유망기업 육성 및 사업전환** 등을 지원하겠음

- **(미래 비전) '원자력 미래포럼'을 상설화**('20.4~) 하고, **원자력 미래 분야별 사업화 로드맵 제시**('20.12) 등을 추진

- **(R&D, 인프라 지원) 산업부·과기부 공동으로 해체·안전 R&D 예산**을 신청('20.5 예정, 1.8조원)하고, 해체 핵심인프라인 **연구소 설립**('20.上 법인설립)도 차질 없이 추진

- **(사업 전환) 자금, 기술, 제도** 등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원전중소 기업들의 사업전환을 유도

- * **(자금) 에너지혁신성장 펀드**(500억원, '20.上)를 통해 사업전환 자금 지원
- * **(기술)** 업체들이 既보유 기술을 활용, 미래 유망분야 등으로 진출을 모색할 수 있도록 **R&D, 컨설팅** 등 지원 ('20년 신규사업 기획)
- * **(제도) 개정 기활법**('19.8)을 활용해 해체 등 분야로 진출을 위한 세제 등 지원

④ 원자력 **신규인력**과 **재직자**들이 미래 유망분야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**인력진출**을 지원하겠음

- **(신규인력)** 원자력공학과 內 **융합교육** 프로그램을 마련(에너지인력 양성사업)하고, 한수원 **원자력전공자 채용비중** 확대(現 13% → '23년 30%)

- **(재직자)** 원전기업 재직자들이 해체·방폐·수출 등 유망분야로 **경력 전환**을 위한 **교육프로그램**('20년 신규사업 기획)을 마련

※ 문의: 서기웅 원전산업정책과장(044-203-5310) / 유의택 사무관(5325)

황병소 기계로봇과장(4310) / 조민웅 사무관 (4318)

윤요한 전력산업과장(5150) / 박환준 사무관(6281)

오승철 재생에너지산업과장(5370) / 김덕구 서기관(5371)